

하도급대금 수령 - 노임 지급 '미스매치' 현상 전문건설업체 자금난 '부채질'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이후 심화... '신속지불법' 개정 주목

하도급대금 수령과 노임지급 시기가 다른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이후 이같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단축 법안(신속지불법) 개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축공사 등이 증가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하도급공사대금을 받는 시기와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시기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체는 기성이 발생한 후에도 월단위 정산을 거쳐 한 두달 후에나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결국 선투입 후에 2~3개월은 지나야 대금을 손에 쥌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근로자 임금지급은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일당은 물론 주급이나 2주, 최대 한달 이내에 대부분 지불해야 한다. 공사 최종 정산시에는 4~5개월 이상 미스매치가 일어나기도 해 자금난은 더욱 심해진다.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자금난 위

기는 새로운 현장을 시작할 때와 최종 정산할 때 두 번 정도는 심하게 온다"며 "추가공사나 돌관공사 때도 정산이 하세월이라 심하게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클린페이)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성을 청구하려면 노임을 사전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 제도들이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얘기해 지급기일을 좀 늦출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업체의

근로자간의 사정 바꾸기가 통하지 않아 단기 자금난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15일에서 7일로,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 추진에 업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선급금이나 최종정산금 지급일이더라도 단축되면 업체들의 자금난에 '거품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 데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원도급사의 기성 수령일도 하도급 지급 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현장간에 자금용동이 안되도록 돼 있는 점도 자금난을 가중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은 정유년을 맞아 3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 현충탑 참배를 하고 있다.

전북조달청, 임실 호국원 방문

전북조달청은 정유년을 맞아 3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 현충탑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는 임중식 청장을 비롯한 전북조달청 직원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하고자 이뤄졌다.

임중식 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aT,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13일까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보조금 146억원을 지원한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팥릿, 플

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해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및 일관 팥릿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경진원, 마을기업 지원 '우수'

신규 마을기업 발굴·자립역량 향상 지원 공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016 마을기업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 방침에 따라 경진원은 신규 마을기업 발굴과 지정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해왔으며, 행정부가 제시한 마을기업 사업 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한 지원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매년 시·도별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신규 마을기업 모델 발굴, 지정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판로 및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진원은 지난 2012년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이후, 매년 행정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최우수 마을기업을 배출하며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자립 활용 및 주민 일자리 창출 등 건설한 지역공동체 기업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은 시·군·도, 행정부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사업성

과 공공성을 검증해 선정되며, 현재 도내에는 100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돼 있다. 전북도의 경우 농촌 기반 마을기업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관광,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형, 신유형 마을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고도화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경진원은 경영이 어려운 마을기업의 회생을 위한 경영 활성화 컨설팅, 팀을 비롯해 기업 재무관리 컨설팅, 식품, 마케팅 등 전문분야 교육, 예비 마을 기업 육성 등 마을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마을기업을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창구로서 마을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글로벌 기업 집중 육성을"

정원탁 전북중기청장, 새해 맞아 포부 밝혀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사진)은 정유년 새해 지원기관간 협업 극대화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속에서 지속되는 수출 부진과 내수침체, 더불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역 내 대기업 수도권 이전 등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힘든 한 해였기 때문이다. 정 청장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하고 우리청의 '간판 떼고 일하자'라는 제언으로 시작한 지원기관간 협업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이어 "올해도 세계경기 하향, 민간소비 저하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에 생존을 위한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파부침주의 자세로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길을 열어주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창업분야도 민관협력 기반 TFS 등 기술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해 글로벌시장 지향형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창업·벤처기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최근 심각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2조원의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불 구족 등 청년상인을 육성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와 전용사업을 육성해 여성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정 청장은 "지역내 지원기관간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이자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중기 정보화사업 신청 접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이 확대된다. 전북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화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와 공용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지원되는 대상은 생산 현장 디지털화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구축, 기술유통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내용과 추진절차 등을 개선했다.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은 온라인(it.smpplatform.go.kr)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

과(063-210-6452)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12월 도내 주식 거래량 감소

12월 전북지역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12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도내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을 합친 주식거래량은 2.36%, 거래대금은 11.04% 각각 감소했다. 주식 거래량은 2억1,766만주로 전월(2억2,292만주)에 비해 526만주, 거래대금은 1조1,080억원으로 전월(1조2,456억원)에 비해 1375억원 각각 줄었다. /인재용 기자